

축산정보

돼지 생산액 축산업중 최고

- 2003년 2조6천812억원으로 농축 산물중 2위

2003년 돼지 생산액은 2조6천812억원으로 '03년 농축산물 총 생산액의 2위를 유지했다. 한육우는 2조4천633억원으로 3위를 차지했으며, 닭은 6천412억원으로 9위를 기록했다. 최근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농축산물 생산액 변화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농축산물 총생산액은 '80년 6조4천억원, '90년 17조7천억원, '00년 31조8천억원, '01년 32조4천억원으로 점차 증가했으나 '03년 31조8천억원으로 '01년을 정점으로 감소 경향을 보였다.

이중 식량작물은 '03년 9조7천552억원으로 30.7%를 차지했으며, 축산은 8조8천696억원으로 27.9%를 차지했다. 또 돼지 생산액은 2조6천812억원으로 전체 농축산물 생산액의 8.4%를 차지했다. 돼지 생산액은 70년대에 9위에 머물렀던 것을 제외하면 '80년 들어 3위를 차지, '90년 이후 '95년 4위를 제외하곤 줄곧 2위 자리로 고수해 우리나라 농업에서 단일품목별 생산액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돼지고기 '전지' 재고 계속 줄어

- 전월대비 31.5% 감소, 다른 부위는 재고량 증가

돈육 전지 부위가 8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조사 재고량 414톤, 추정량 1천555톤으로, 조사 재고량은 전월대비 31.5%나 감소했으며, 추정량 또한 29.4% 감소했다. 반면 11월 돈육 조사 재고량은 5천324톤으로 전월대비 4.7% 증가했다.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가 29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돈육 재고량을 조사한 결과 11월 돼지고기 전체 재고량은 소폭 증가했다. 부위별 돈육 재고량은 안심이 104톤으로 전월대비 32.7% 증가했으며, 등심이 508톤으로 전월대비 24.7% 증가했다. 또 후지(944톤)와 삼겹살(1천623톤), 갈비(642톤)는 각각 전월대비 15.7%, 6.9%, 28.8% 증가했으며, 목등심은 697톤으로 7.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돼지 오제스키병 증가, PED는 감소

최근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누계 오제스키병은 37농가에서 837두가 발생해 2003년보다 증가하고, PED(유행성설사병)는

44농가에서 9천105두가 발생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제스키병은 '03년 동기대비 농가는 60.9% 증가, 두수는 152.1%가 증가했다. 그러나 PED는 '03년 동기 대비 농가 45.7% 감소, 두수 67.8% 각각 감소했다.

12월 돼지 사육두수 8백90만 8천두로 감소

- 전년 동기비 3.5% 줄어

지난해 12월 돼지 사육두수는 전년 동기대비 3.5%(32만3천두) 감소한 8백90만8천두로 나타났다. 이는 돼지 산지가격 상승, 축산분뇨 처리 및 소모성 질병 등 발생으로 사육두수가 감소해 전분기대비 13만8천두(1.5%)가 감소한 수치이다.

한편 돼지 사육 가구수는 총 1만3천270호로 전분기대비 0.2% 증가했으나, 전년동기대비 12.9% 감소해 양돈을 포기하는 가구수가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본지 208페이지 통계자료 참조)

농림부, 돈열 예방접종 철저 당부

돈열 재발 방지를 위해 제주도

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한 이후 항체양성률이 전국에서 95% 수준을 꾸준히 유지해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예방접종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림부는 시군별 돈열 항체검사 분석 결과 일부 시군의 경우 항체양성률이 8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어 돈열 발생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각 시도 등에 예방접종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차등 지급 등을 엄격히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고속철 운행 소음 피해 양돈농가 첫 배상

- 환경부, 고속철 소음 피해보상 인정

지난 1월 4일 처음으로 고속철 운행 소음에 대한 배상결정이 내려졌다. 경기도 화성시 소재 양돈농가 이씨(53)는 고속철 소음으로 인해 돼지 사산이 잇따르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고속철 매송 통과구간 65m 거리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는 이씨는 '03년 7월 경부고속철 시험운행이 시작된 뒤 임신 중이던 모든 110마리가 유산·사산을 했다며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현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공단측은 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반면 공단측은 고속철 공사 도중 발생한 소음과 진동 피해에 대

농민단체장 출신 '박홍수' 신임 농림부장관 취임

"농업인 권익신장 위해 노력"



지난 1월 4일 개각에

따라 박홍수 (50) 열린우 리당 의원이

신임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박홍수 신임 농림부 장관은 1월 5일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농림부 소속 직원, 기관장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지고 "농민단체·소비

자단체 등 정책고객의 입장에서 농정의 신뢰를 회복하면서 농업인의 권익을 신장시키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정책 실현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찾는 현장농정과, 정책에 대해 책임을 지는 책임농정을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해서 건설사가 이씨에게 보상금 590만원을 미리 지급했다고 밝히고, 방음벽을 설치했으며 평균 소음이 약간 소음 기준인 65dB를 넘지 않아 고속철 소음 때문에 가축 피해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해왔다.

소비자, "돼지고기가 가장 좋아"

- 돼지고기 선호 74.5%,

- 월 3회 돼지고기 구입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가 분석한 '축산물 소비자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내 고기종류별 선호도에서 돼지고기 선호도가 74.5%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냈다.

전국 권역별 20세 이상 남여 1천9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의식조사에 따르면, 축산물 구입에 대한 소비자 성향 조사 결과 고기

종류별 선호도에 있어서 돼지고기 선호도는 74.5%, 쇠고기는 62.7%, 닭고기 57.4%로 각각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응답자들이 좋아하는 고기종류는 돼지고기가 1위, 쇠고기가 2위, 닭고기가 3위를 차지했다. 또한, 가구당 한 달에 3회 이상 돼지고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쇠고기는 1.97회, 닭고기는 2.05회 구입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회 평균 돼지고기 구입량은 1천 134그램으로 조사됐으며, 가구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월평균 2천918그램(약 3kg), 쇠고기는 1천706그램(약 2kg)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대한주부클럽연합회는 쇠고기보다 돼지고기 소비량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 보편적으로 쇠고기보다 돼지고기 소비를 즐기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지난해 돈육 수입 '칠레' 산 1위

- 2004년 돈육 수입 총 10만8천 829톤··· 칠레산 1만7천366톤

2004년 돈육 수입국 중 '칠레'로부터의 돈육 수입이 가장 많았다.<그래프1>

최근 농림부가 발표한 축산물 수입검역통계 12월 하순 조사 결과 지난해 돈육 수입 총량은 10만8천 829톤으로 '03년보다 79%나 증가했으며, 그중 칠레산은 1만7천 366톤이 수입됐다. 이에 따라 칠레산 돈육은 8월 이후 5개월 연속 최고 수입량을 보여 지난해 칠레산 돈육 수입량이 최고를 기록했다.

이어 벨기에산 돈육은 12월 누계 1만6천769톤으로 칠레 수입량의 뒤를 이었다. 또 12월 동안은 총 1만1천111톤의 돈육이 수입됐으며, 이는 11월 8천324톤보다 33.5% 증가한 양이다.

유해물질 잔류 위반농가 감시 강화

- 농가 규제검사기간 6개월로 연장 내년 2월부터 항생물질 등 식육

중 유해물질 잔류 위반 농가에 대한 감시·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항생제 등 유해물질의 식육 중 잔류방지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규제검사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또 규제검사 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1농가 1공무원 담당관을 지정해 잔류원인규명 등을 통한 사양관리 개선지도와 출하상황 등을 감독하게 해 잔류위반농가에서의 익명출하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농어촌 출신 대학생 등록금 무이자 융자

- 1월 18일~2월 4일까지 신청

농어촌 출신 대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부는 10일 농어촌 출신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학자금 지원규모는 621억원으로 학기당 1만4천명 수준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매학기 등록금과 입학금 범위내에서 신청 금액 전액을 무이자 융자받을 수 있다. 또한 융자금은 졸업후 1년거치, 1학기 융자금액을 1년단위로 상환하면 된다.

■문의 : 02)3460-5600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 농지소유규모 2㏊미만 농어가까지 지원

농림부는 올해부터 농어업인의 0~5세 자녀에 대한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 지원대상을 2004년 농지소유규모 1.5㏊미만인 농어가에 한해 지원하던 것을 '2㏊미만' 농어가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2㏊미만 농어가로서 해당 농어업인의 0~5세 자녀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또 농지 2㏊에 준하는 규모 미만의 축산,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농어업인의 자녀에게도 지원된다.

해당 농어업인은 '양육비 지원신청서'를 1월에 해당 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이·통장을 경유해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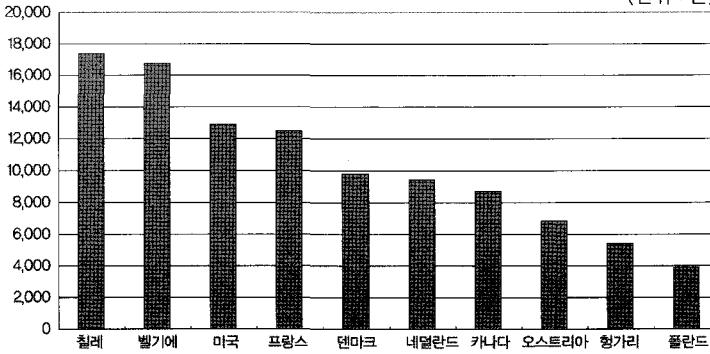
농림부, 축산물 브랜드 지원사업 지속 추진

- 브랜드 컨설팅 사업·포장재 지원 사업 신규 추진

농림부는 고품질의 위생·안전

<그래프1> 2004년 돼지고기 수입내역(주요국)

(단위 : 톤)



축 산 정 보

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해 축산물 시장을 차별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축산물브랜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농림부는 산지축산물 생산 유통지원사업과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은 계속사업으로 지원하고, 올해부터 '브랜드육 포장재 지원' 및 '축산물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은 신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는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성내동 소재 농협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 2005년 산지축산물 생산유통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브랜드사업 지원을 400여억원 추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산지축산물을 생산유통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영체와 조합은 사업 신청 서를 오는 1월 21일까지 브랜드사업은 시·군에, 조합경제활성화사업은 농협지역본부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제주 돈열 항체 양성반응 추가 발생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금악리의 한 양돈농가에서 백신접종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돈열 항체 양성반응이 추가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지난 1월 12일 금악리 S농장에서 기르는 돼지 1천650마리 중 147마리를 대상으로 검사를 벌인 결과 84마리가 백신접종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돈열 항체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23일 북

제주군 구좌읍 T종돈장에서 백신접종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돈열 항체 양성반응이 처음 확인된 이후 현재까지 T종돈장 344마리, 제주시 해안동 H농장 55마리, T농장 37마리, 도축장 출하돈 4마리, 금악리 S농장 84마리 등 모두 524마리에서 돼지콜레라 항체 양성반응이 확인됐다.

양돈사료 생산량 소폭 감소

- 11월 48만톤, 12월도 감소 예상
- 사육두수 감소 영향

최근 농협과 사료협회는 11월 양돈사료량이 48만톤으로 전년동월(47만7천4백여톤)대비 0.6% 증가 했고, 전월(49만4천2백여톤)대비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소폭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11월말 현재 양돈사료량은 492만3천톤으로 전년동기 513만939톤 대비 4.1% 감소했다.

또한 12월 가축사육두수가 전년 동기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배합사료 생산량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배합사료 가격 인하와 함께 겨울철 가축관리를 위한 사료 증량 급여 등의 영향으로 감소폭이 둔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군, 고단백 돼지고기 급식 비율 높여

올해부터 군 장병들의 식단에 고단백 돼지고기와 한우 비율이 높아진다.

국방부는 우선 소시지의 원료인

돼지고기 비율을 34%에서 70%로 대폭 늘리고, 돼지갈비 급식 횟수를 현행 연 15회에서 18회로 늘리기로 했다.

또 쇠고기는 수입고기와 한우의 비율을 현행 6:1에서 5:5 수준으로 한우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사료공장도 HACCP 인증 실시

- 수과검, 올해부터 희망업체에 한해 인증

올해부터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을 한 업체 중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 사료공장에도 HACCP가 시행된다.

HACCP 적용 사료공장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농림부는 지난해 말 사료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위와 같은 '사료 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기준'을 제정 고시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농림부는 사료공장 HACCP 인증기관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지정했다.

작년 종돈수입 크게 증가

- 수컷 듀록, 암컷 대오크셔 가장 많아
- 최근 종축개량협회에 따르면 작년 종돈수입두수는 1천361마리로 '03년 760마리에 비해 79.1%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1년 이후 최고 수입 두수다. 품종별 수입두수는 버크셔: 223두(암 117두, 수 106두) 햄프

셔 : 40두(암 25두, 수 15두) 랜드레이스 : 287두(암 181두, 수 106두) 대요크셔 : 443두(암 290두, 수 153두) 듀록 : 368두(암 50두, 수 318두)로 암컷의 경우 대요크셔, 수컷은 듀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 수입 두수는 미국이 690두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캐나다 327두, 영국 258두, 덴마크 49두, 스웨덴 37두로 나타났다.

12월 암퇘지 경락가 크게 상승

- 전월대비 9.4% · 전년대비 43% 상승

지난해 12월 암퇘지 평균경락가격이 9월 이후 다시 3천원대를 웃돌면서 상승세를 지속했다.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김경남)는 2004년 12월중 등급판정 결과 암퇘지 평균경락가는 3천262원으로 전월대비 9.4% 상승, 전년대비 43%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암퇘지의 등급별 경락가격은 A등급의 경우 4천7원으로 전월보다 378원(10.4%), 전년대비 1천329원(49.6%) 상승했으며, B등급은 3천760원으로 전월대비 339원(9.9%), 전년대비 1천260원(50.4%) 상승했다.

C등급 또한 3천583원으로 전월 대비 327원(10%), 전년대비 1천214원(51.2%) 상승했으며, D등급도 3천364원을 기록해 각각 전월 대비 286원(9.3%), 전년대비 1천217원(56.7%) 상승했다.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지원

- 500두 미만 소규모 농가 대상 공동방제단 운영

농림부는 전 축산농가가 자율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소독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소규모 농가에는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소규모 농가 대상 일제소독 지원사업을 위해 투입되는 공동방제단은 특별방역기간(3~5월) 동안에는 3월 마지막 주를 제외한 매주 수요일, 12회 운영되며, 1~2월과 6~12월 동안은 매월 셋째주 수요일, 9회 운영된다. 또 소독약품은 공동방제단용으로 21회, 농가용으로 9회(3월-1회, 6월-2회, 7~12월-6회) 총 30회/년 공급된다.

식육판매업자 포장육 원산지 등 표시 의무화

오는 2월부터 백화점, 할인점의 정육판매코너와 일반 정육점 등 식육판매업자는 자체 포장육을 판매할 때 원산지와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농림부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고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2월부터 시행한다고 1월 14일 밝혔다.

백화점, 할인점의 정육코너와 일반 정육점 등 식육판매업자들은 앞

으로 돼지고기 등 고기를 용기에 담아 비닐 등으로 포장해 진열, 판매할 때 고기의 부위명과 원산지,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스티커를 포장지에 부착해야 한다.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않고 포장육을 판매하면 7일~1개월 동안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되고, 영업정지 조치를 피하려면 영업정지 하루당 6만~83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설 대비 돼지고기 등 11개 품목 공급 확대

농림부는 설을 맞아 1월 25일~2월 7일까지 설 농축산물 수급안정특별대책기간을 정하고, 돼지고기, 쇠고기, 쌀 등 11개 제수용품의 공급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농협 등을 통해 설 성수 농축산물의 공급물량을 평시대비 최고 6배까지 확대하고, 농협 하나로클럽 등 총 2천 300여개소의 판매장 및 570여개 직거래장터에서 제수용품을 시중가보다 5~30% 싸게 판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위반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설 성수품의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강화

농림부는 축산농가의 자율방역과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가축 전염병예방법시행령'을 개정하고 보상금 지급기준을 강화했다. 또

검사·주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살처분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 보상금 지급기준을 보완하고, 법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위반 횟수별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했다.

우수 가축방역지자체에 '특별 포상'

- 농림부, 효과적 방역 추진… '가축 방역특별포상제' 시행

올해부터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수행한 우수 지자체는 정부로부터 시상금을 지급, 정책자금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농림부는 지난해 말 「05년 가축방역 특별포상제 사업실시요령」을 통보하고, 매년 지자체별 추진 상황을 평가·성과 분석해 도, 시·군·구, 가축위생시험소 등 우수 지자체에 시상금을 지급, 언론 공표, 정책자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향을 설정했다.

HACCP 적용 도축장 미생물 검사 강화키로

- 입법예고 사항 의견 오는 2월 10 일까지 제출

농림부는 지난 11일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식육중 미생물 검사 요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안 예고했으며, 이에 HACCP 적용 도축장에 대한 미생물 검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따라서 식육중 미생물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항목을 대장균수

(Esch-erichia coli Biotype I)와 일반세균수로 하고, 동 항목의 검사결과조치는 '식육중 미생물 검사 요령'에 따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살모넬라균 검사는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홍채인식 시스템 발표회 개최

지난 1월 11일(화)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홍채인식 발표회'가 개최됐다. 미국의 Optibrand 홍채인식 시스템은 현재 미국 '소'를 대상으로 상용화되어 있다.

Optibrand 관계자들은 돼지와 같은 가축에도 홍채인식 시스템을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돼지의 망막 혈관 분포도의 혈관 패턴은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Optibrand의 발표를 들은 업계 관계자들은 홍채인식 시스템이 확실히 선진화된 시스템인 것에는 공감하지만, 망막 촬영 이미지의 실시간 판독 기능이나 미국과 한국의 Traceability에 대한 개념 등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를 보였다.

검역원, 이동가축 '방역관리 확인시스템' 확대 적용키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04년 12월 23일(목) 검역원 대강당에서 농림부,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방역본부, 양돈수의사회 등 총 74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가축 방역관리 확인시스템 모델

개발 시범사업' 종합평가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동 시스템에 참여한 8개 시·군 정착을 추진하고, 향후 모델 개발에 따라 타 시·군에 확대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방역본부, 도축검사원 100명 채용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정영채)는 2005년도 도축검사원(계약직) 특별채용시험을 시행했다. 방역본부는 농림부의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에 도축검사를 강화시키기 위해 도축검사원을 연차별로 총원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우선 올해에 1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농협 축산지원부에 '이정현' 부장

- 자조금관리위원 이정현 부장으로 변경



이정현 부장

농협중앙회 축산 지원부 부장에 이정현 전 축산경제기획 실장이 보직 이동했다. 이에 따라 양돈 자조금 당연직 관리 위원이 김운철 부장에서 이정현 부장으로 변경됐다.

이정현(55) 부장은 건국대 축산 학과를 졸업 72년 3월에 농협에 입사 축산경제기획실장을 역임했다. 양돈